

사쓰몬시대

사쓰몬시대(서기 600~1200 년)의 문화는 홋카이도 특유의 문화로 일본의 다른 많은 지역의 문화와는 달리 조몬시대(기원전 13,000 년~기원전 500 년)의 수렵채집 문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. 남쪽에 위치한 혼슈의 영향을 받아 화덕, 철기, 직물 등의 기술이 서서히 도입되었습니다. 한랭한 기후 때문에 벼농사는 할 수 없었지만 수수와 보리 같은 곡물을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.

구시로에서 발견된 사쓰몬 토기에는 나무 주걱으로 새겨진 무늬가 있습니다. 사쓰몬 토기 중에는 이런 새겨진 무늬와 북쪽에 있는 오토츠크 사회의 토기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양각 장식을 모두 가진 토기도 발견되었습니다. 5 세기 이후 유라시아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쿠릴열도와 사할린섬 같은 오토츠크해 주변 지역에 정착했습니다. 이들은 현재의 러시아 동부와 중국 북부의 국경 지대에 있는 아무르강(헤이룽강) 유역에서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. 이들은 해안가 취락에 살면서 고래와 바다표범 같은 비교적 큰 해수를 사냥했으며 개와 돼지를 길렀습니다. 그리고 이들 북방인들과 홋카이도 주민들의 교류가 늘어났습니다. 이를 사쓰몬 토기 양식과 오토츠크 장식의 융합에서 볼 수 있습니다.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런 문화의 만남이 아이누 문화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.